

# 民謠 歌唱者의 時間과 空間 意識

李 性 勳

(송실대학교 강사)

1. 머리말
2. 민요 가창자의 시간의식
3. 민요 가창자의 공간의식
4. 맺음말

## <국문 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해녀노젓는소리> 가창자인 해녀들의 生涯歷을 바탕으로 그들이 체험한 삶의 軌跡이 민요 사설로 어떻게 形象化되고 있는지를 시간과 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에 나타난 시간 의식은 본토에 이주 정착하기 전의 제주의 風物이나 記憶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본토 이주 정착민으로서의 삶의 指標와 方向을 찾아 自我 正體性을 확립하려는 努力과 意志로 볼 수 있다. 본토 移住民으로서 고향인 제주도로 귀향할 수 없다면 고향에 대한 인식은 타향에서의 느끼는 異邦人으로서의 설움과 본토 주민과의 葛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土臺를 마련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羅針盤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토에 정착한 해녀들에게 濟州島라는 공간은 제주도에서 살았던 原型性에 대한 憧憬의 대상이면서, 본토 원주민과 갈등을 통해 지주민으로서의 자아 正體性을 찾게 되는 원형적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라는 원형적 공간은 본토에서 겪는 문화적 異質感과 文化 衝突이 빚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본토라는 공간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본토 원주민들로부터 賤待와 驅迫 받는 이질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본토라는 공간은 새로운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어: 민요, 해녀노젓는소리, 가창자, 시간의식, 공간의식, 제주도, 해녀, 해녀들의 생애력.

## 1. 머리말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영위되고 존속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개인의 역사,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시대적 상황이란 고립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지향해 나가는 辨證法的 時間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sup>1)</sup>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民謠 歌唱者의 삶의 과정 속에서 體驗한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내재화될 수 있다.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체험을 민요 사설로 형상화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본토 出稼 海女들은 共同體를 이루어 생활한다. 海女들이 漁場에 물질 작업을 나갈 때도 10 여명이 동아리를 이루어 나간다. 이처럼 가창자 개인의 삶은 다를 수 있어도 이주 정착한 지역에서의 주민들과의 관계나 물질 작업을 하면서 겪었던 체험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해녀들은 본토에 출가 물질 나와서 ‘뱃물질’하러 오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며 <해녀노젓는소리>를 불렀다. 서부경남지역 중에 거제시와 사천시의 경우, <해녀노젓는소리>의 가창기연인 돛배의 노 젓는 노동은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고, 그 후는 동력선의 등장으로 소멸되었다.<sup>2)</sup>

그렇다면 <해녀노젓는소리> 가창자들은 演行 現場에서 어떠한 시간 의식과 공간 의식을 갖고 <해녀노젓는소리>를 구연하였을까? 이것이 본 논의의 출발점이다. 가창자의 생애와 시대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민요 사설 속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녀노젓는소리> 가창자인 해녀들의 生涯歷을 바탕으로 그들이 체험한 삶의 軌跡이 민요 사설로 어떻게 形象化되

1) 김은철, 「백석 시 연구-과거지향의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86면.

2) 이성훈,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493면.

고 있는지를 시간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이 논문에 활용된 자료는 강원도 속초시 이기순, 경상남도 통영시 현영자, 경상남도 거제시 윤미자, 제주도 북제주군 성산읍 양송백이 구연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실과 생애력이다.

## 2. 민요 가창자의 시간의식

시간 의식이라 함은 시간에 대하여 인간이 의식하는 방식 및 그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다. 현상이나 실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방법이나 태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곧 시간의 실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경계나 구분도 없으며 단위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인간이 측정을 위해 설정한 단위가 있을 뿐이다.<sup>3)</sup>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내재하며, 시간의 흐름은 의식의 흐름과 일치한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활동이나 경험적 자각에 따라 자신만의 내밀한 시간을 형성한다. 즉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내·외적 경험을 통해 심적으로 다양한 質的 變容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질적 변용은 인간에게 變化와 生成의 힘을 부여하며 나아가서는 存在의 의미를 부여한다.<sup>4)</sup>

<해녀노젓는소리>는 해녀들이 ‘뱃물질’ 하러 오갈 때 돛배의 ‘젓길 이노’를 저으며 주로 부른다. 간혹 ‘갯물질’ 나갈 때 테왁 짚고 허엄치면서 <해녀노젓는소리>를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이 같고 가락이 조금 빠른 편이다. 또한 해녀들이 ‘불턱’<sup>5)</sup>에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도 <해

3)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87면.

4) 조연숙, 「향가의 시간의식 연구」, 『고시가연구』 제13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4, 249면.

너노젓는소리>를 불렀다.

“일흔 봄으로부터 느진 가을까지에 풍량이 나고 요한 날이면 언제든지 바다 한가운데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잠박곡질하는 해녀를 볼 수 있스니 散髮한 얼골만이 白鳩와 벗이 되어 蒼浪에 뜨다가는 휘-하는 소리와 한가지로 물속에 사라지고 죽지나 안았는가 의심하는 동안에 어느 듯 생복을 손에 쥐고 젓가슴까지 물박그로 내어 낚는 그들의 작업광경은 보는 사람으로 人魚나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러한 노동을 사오십분 계속한 후에는 부근 섬이나 바위에 나와 불을 피우고 물 속에 얼었던 몸을 말리면서 그들의 독특한 음조로 노래를 부른다.

‘총각 싸라 섬에나 들게  
 량식 싸라 섬에나 가게  
 정심 싸라 고지나? 가게  
 날죽건 꽃바테 무디  
 궁녀 신녀 물주람 팔가.’<sup>6)</sup>

그렇다면 <해녀노젓는소리> 歌唱者들은 演行 現場에서 어떠한 시간 의식을 갖고 <해녀노젓는소리>를 구연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실에 있어서 과거는 기억이나 체험을 회상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과거는 해녀들이 濟州島에서나 本土로 出稼 물질 나와서 겪었던 체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江原道 東草市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해녀 이기순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고향 생각이 나거나 심심하면 <해녀노젓는소리>를 부른다고 하였다.

“고향 갈라고 고향 생각나면 그자 집의 앉아서 또 밤의도 요센 누엇다가 심심허면 이 노래 불러져, 혼자서.”<sup>7)</sup>

5) 해녀들이 무자매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이 하기 위하여 마련해 간 뿔감으로 불을 지펴서 찌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 바닷가 바위의 자연적 덩굴이를 활용하여 꾸며지기도 하여, 해녀들의 탈의장으로도 이용됨.(제주방언연구회,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281면.)

6) 김두백, 「여인국순례, 제주도해녀」, 『삼천리』 제1호, 1925, 23면.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속초시에 거주하는 가창자 이기순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거주했던 과거 시간은 긍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속초에서의 현재 시간은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한다. 타향살이로 인한 客愁感이 鄉愁에 젖어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해녀노젓는소리>를 口演하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 결과 제주도 거주하던 과거 시간은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가창자 이기순이 자신의 生涯談을 口述하면서 자신이 몸소 겪었던 바를 <해녀노젓는소리> 사실에 投影시킴으로써 민요 사실이 가창자의 생애력과 무관하지 않고 聯關性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 이제 남의 때문에 그래가 그러는데, 거제도 오라서 내가, 내가 기어서 노래를 하니 해녀덜 혼 으남은이 다 울었다고.

(조): 혼 번 해봅써.

(제) 8.

엄마 엄마	허는 아기
저 산천에	묻혀나 놓고 허
한라산을	등에다 지고
연락선을	질을 삼아 하
거제도를	멀 허래 오란
받는 것은	구속이고
지는 것은	눈물이로다
이여사 하	

9.

요 금전을	벌어다
우는 애기	밥을 주나 하

7)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 제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499면.

병든 낭군	약을 주나 하
혼차 벌엉	혼차 먹엉
요 금전이	웬말이더냐 하
이여싸 하	이여싸

(제): 내가 애기 죽어둔 오라서 그 노래를 해서, 거제도 사름이 다 울었다고.<sup>8)</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가창자 이기순은 <해녀노젓는소리>를 가창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巨濟島로 移住할 수밖에 없었던 緣由를 노래하면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위에 인용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이 돋보이는 것은 가창자 이기순이 제주도에서 겪었던 일들을 거제도에서 거주하며 물질할 때 화자의 시점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마 엄마 / 허는 아기 // 저 산천에 / 묻혀나 놓고 허”라고 노래하는 사설은 이기순이 釜山을 거쳐 거제도로 이주하게 된 원인을 밝힌 것이다. 거제도로 이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죽은 후 자식마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제도로 출가물질을 나온다. 하지만 “연락선을 길을 삼아서 거제도를 무엇하러 와서 받는 것은 흥이고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연락선을 / 길을 삼아 하 // 거제도를 / 멀 허레 오란 // 받는 것은 / 구속이고 // 지는 것은 / 눈물이로다)”고 자탄한다. 또한 자식과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힘들게 물질하여 “돈을 벌어다 우는 아기에게 밥을 줄 수가 있나, 그렇다고 병든 낭군에게 약을 줄 수 있나(요 금전을 / 벌어다 // 우는 애기 / 밥을 주나 하 // 병든 낭군 / 약을 주나 하)”라고 자문하며 자탄한다. 자식과 남편이 부재하기에 “혼자 벌어서 혼자 먹어서 요 금전이 웬말이더냐(혼차 벌엉 / 혼차 먹엉 // 요 금전이 / 웬말이더냐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8) 이성훈, 앞의 글, 488~489면.

노래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일들이지만 과거시제가 아니라 현재시제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시제의 관점에서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 회상의 沒入이며 과거 지향적 태도를 堅持하는 가창자의 內面 意識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 회상의 몰입과 과거지향적 태도는 그녀의 생애력을 구술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제주도서 물질이야, 우리 모습에는 머 전부 엔날이사 무신 혼 집에 물질 뭐 니다섯 썩은 다 매누리고 딸이고 손지고 다혈 때니까 머. 계속 잘 허긴 잘했지. 그 시국 일어나 갖고 스삼 사건에 몬 그러고, 어쩌하다 본께는 머 신랑도 죽고, 머 애기도 아홉 설 먹은 거 차로 굴러 죽었어, 북촌 학교 앞에서. 차로 굴러 죽여두고는 그만 미쳐서. 아홉 설 백여가 차로 굴러, 나 스무 설에 난 거 차로 굴러 죽이니까 머. 반 미쳐가꼬 신랑도 죽어 불고, 아홉 설 백여서 차로 그거 굴러 죽어 불고 허니까, 미쳐서. 그런데 스물일곱 설에 저 부산 나온 거라. 그 때 시절엔 이렇게 살아질 생각은 안 허고. 어디 가다가 객선에라도 타며는 물에 빠져 죽을 거. …중략… 북촌만 살다가 애긴 딱히게 차로 굴러 죽이고 나니까, 미쳐서 제주도는 다돌아맹겨서 내가. 어디 저 남원으로 어딜로 미쳐서 돌아맹기다가, 예고, 이젠 제주도선 죽지도 못힐 꺼고, 나 육지 나가면, 육지 간다허곡, 객선에 가서 타며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잇겠다해서, 설들에 저 몸빼 하나 입고 외양목 적삼 하나 입고 떠나 온 게 죽지도 못허고, 부산 오랏다가 또 거제도 가서 한 삼 년 살다가, 거제도서 또 혼차 젊은 여자니까 못살더라고.9)

제주도에서의 남편과 자식을 잃었던 과거는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속초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현재의 처지에서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과거의 부정적인 시간 의식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긍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였던 제주도에서의 과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타향살이 하는 현재의 자신의 처지는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9) 이성훈, 앞의 글, 465~466면.



이처럼 가창자 이기순은 고향이 제주도라는 사실을 회상하며, 과거와 현재의 正體性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본토에 이주하여 定着한 가창자들은 <해녀노젓는소리>를 가창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다. 타향살이를 하는 가창자의 시간은 현재이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며 <해녀노젓는소리>를 가창하는 시간은 과거 시간이다.

<해녀노젓는소리>는 ‘굿물질’ 나갈 때 해엄치며 부르거나 해녀 동아리가 모여서 놀 때도 부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료함을 달래거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이 때 해녀들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同質性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창자들은 <해녀노젓는소리>를 구연하는 동안은 현재에서 과거로 回歸한다. 당대의 힘들고 고통스럽던 상황을 회상하며, 가창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1]

A :	이여사나	이여사	
B :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
A :	우리나	고향은	
B :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A :	전라남도	제준테	
B :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A :	임시아	사는 데는	
B :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A :	거제야	산천이요	
B :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A :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B :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A :	산도 설고	무슨 곶에	
B :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A :	누구를	찾아 와서	

B :	이여사나	이여사나
A :	타관은	고향 되고
B :		이여사나
A :	고향은	타관이 되고
B :		이여사나
A :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B :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sup>10)</sup>

위에 인용한 자료 [1]은 필자가 2004년 11월 13일 慶尙南道 巨濟市 南部面 楮仇里 大浦마을에서 채록한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이다. A 가 창자인 윤미자는 1934년 濟州道 牛島面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6살에 어머니와 함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로 이주해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윤미자의 출생지는 제주도이지만, 사실상 고향은 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창자 윤미자는 유아기 시절만 제주에서 살았을 뿐이고, 이후는 대부분을 거제도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윤미자는 제주도를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 / 고향은 // 전라남도 / 제준데 // 임시야 / 사는 데는 // 거제야 / 산천이요”라고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다. 양친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사실은 윤미자로 하여금 제주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하나의 機制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윤미자는 고향을 ‘제주도’라고 하지 않고 ‘全羅南道 濟州’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윤미자가 <해녀노젓는소리>를 배우고 부르던 시기가 濟州島가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濟州島는 행정상으로는 독립된 행정단위로 濟州道이지만, 濟州島가 全羅南道 관할에서 분리되어 道名을 濟州道라 稱하는 令은 1946년 7월 30일 24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第九十四號 濟州道の 設置 법령으로 1946년 7월 2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10) 이성훈, 「서부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 조사」, 『승실어문』 제21집, 승실어문학회, 2005, 393~394면.

러치(Archer L. Lerch)의 명의로 공포되었다. 다시 말해서 윤미자가 고향을 濟州道라고 하지 않고 '전라남도 제주'라고 노래한 것은 濟州島가 1946년 8월 道로 승격되기 이전인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시기에 <해녀노젓는소리>를 배우고 불렀다는 점과 當代의 時間 指標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윤미자는 <해녀노젓는소리>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과거 시간은 거제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현재 시간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시간이 본토에서 물질을 하다가 제주도로 歸鄉할 수도 있었던 시절이었기에 그리움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고 본다.

결국 윤미자는 고향이 전라남도 제주도라고 여겼던 과거의 시간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거제도를 임시 거처로 여기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향인 제주도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인 타향이 되고, 타향인 거제도에 고향이 되었다고 인식한다. “산도 설고 / 무슨 끝에 // 누구를 / 찾아 와서 // 타관은 / 고향 되고 // 고향은 / 타관이 되고”라고 노래한 것이 그것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간절하지만, 고향인 제주도는 과거의 시간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타향인 거제도는 현재의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고향에도 타향에도 안주할 수 없는 심리적 갈등 양상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현재 시간 속에서의 삶의 지표를 喚起시키는 觸媒劑 역할을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현재 시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제가 된다.

[2]

A : 악마 7뜰                      요 금전을  
 A : 벌여서도  
 B :                      이여사나

A : 눈을 사나	밭을 사나	
B :		이여사나
A : 얻은 자식	대학 출신	
A : 사각모자	씩을라고	
B :	이여사나	이여씨
A : 나가 요리	한다 말고	
B :		이여사나
A : 이여사나	이여사나 <sup>11)</sup>	

[2]의 A 가창자 윤미자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번 금전으로 눈을 사겠냐, 밭을 사겠냐고 自問하면서, 자신의 富貴榮華가 아닌 자식의 立身揚名을 위해 물질작업의 고생을 甘受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면서도 미래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의식 때문에 부정적인 현재 시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심리적인 基底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녀의 입신양명이라는 미래 시간에 대한 기대는 고생스럽고 힘든 현재 시간에 대한 마음의 慰安을 얻는 동시에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突破口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 때문에 현실을 諦念하거나 逃避하기보다는 現實 克服의 意志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 3. 민요 가창자의 공간의식

고향은 마음의 安息處이다. 본토에 출가물질을 나왔다가 정착한 해녀들에게 제주도라는 공간은 憧憬의 대상이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원형적 공간이기도 하다. 제주도라는 공간은 본토에 정착한 해녀들

11) 위의 글, 394면.

이 타향인 본토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異質感과 문화 衝突이 빛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제주도에서 살았던 원형성에 대한 동경은 본토에 살면서 원주민과 겪게 되는 갈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은 제주도 사람이라는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본토라는 공간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겪게 되는 이질적 공간이고, 부정적 현실로부터 도피의 공간이면서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을 동경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먼저 기회의 공간이면서 이질적 공간으로서의 본토에 대한 공간 의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양송백은 1905년 제주도 우도면에서 출생하여 1965년까지 60년간 이 섬에서 살다가 城山邑 濫平里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1922년부터 1935년까지 巨濟島·九龍浦·釜山·豆滿江·馬養島·新浦 등지에 나가 물질을 했고, 1936년부터 1945년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日本의 下關·四國 등지에 두어 차례 물질을 나갔었다.<sup>12)</sup>

열 술 뒤퀰 물질을 배완 벌어 먹영 살겐 배와시네. 물바우에 강 우리 언넨 흐 꿈 크난에 오물락오물락 숨비곡 난 못흐른 우리 언넨 열다섯 때난 물질해라게. 므스왕 아이고 어명 들어가코 시퍼령흔디 눈도 안 씨곡 흐영, 영 사민 물데레 자락자락 들이밀명 물질 안 흐민 어명흐영 살티, 굶영 죽을티 흐른 살기 위헨 물질 배와시네. 열으뜸술 나난 육질 가지 안 헤시냐. 어명흐연 가게 뒤신고 흐른 우리 아바지가 병을 난 죽게 뒤고 돈이 서사[있어야] 약을 상 먹을 거난. 놉신디 돈을 끈거 아니. 밧문세나 집문셀 쥐사 돈을 꾸 쟁. 돈은 누게 벌 사름 옷 이난 웃고. 쟈 나가 열으뜸술에 육지간 벌언 오란 집이영 밧이영 문세 다 좃안 안네영 시집을 가서.<sup>13)</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가창자 이기순은 10살 때 먹고 살기 위해 물질을 배우게 된다. 가창자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죽게 되자 집문서와 밧문

12)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153~154면.

13) 위의 책, 154~155면.

서를 擔保로 돈을 차용한다. 이기순은 빚을 갚기 위해 18살에 본토로 출가물질을 나오게 된다. 이때 번 돈으로 집문서와 발문서를 찾게 된다.

이처럼 본토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본토인으로부터 賤待와 驅迫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디 강 물질을 흘 끼고 ㅎ난 두만강서 ㅎ랜 ㅎ는 거라. 물에 들영토난 강 ㅎ 나만 넘으민 로서아(러시아)이 경ㅎ난 눈물이 나더라. 아이고 우리가 해녀질 배 왕 돈을 딸랑 오논디 이거 어디엔 우리가 오라 저신고, 이제랑 부모덜안티 펜지 나 ㅎ젠. 또시 우린 글이나 아느냐. 소섭에도 글 배운 사름 ㅎ나도 웃이져. 경해도 난 우리 아덜, 손지도 이제 ㄱ정 공부시켰져. 우리 강 물질을 ㅎ는 ㅈ구엔 그 ㄷ 사름덜이 낮인 제뻬 우리광 벼을 ㅎ더라. 밤은 뉘몬 돌머드름(돌판매질)이다 나오꼭 아주 백헛 못 살갓터라. ㅎ 스무날 물질해보단 안 뉘거든. 나오질 안 해시냐. 다시 청진을 나오라네 돌아상 오논디, 어디 오랑 물질을 해신고 ㅎ몬 마령도(馬養島)신포(新浦) 오라네 물질을 시작해신디 유월 초나흘부터 팔월 열 나흘까지 물질을 했어 그던 경 ㅈ음이 좋더라, 막 음식도 ㄱ짜 노냥 막꼭 우리가 살아가듯 살아가지더라. 물건을 얼마나 잡아신고 ㅎ몬 ㅎ 들 동안 물질ㅎ 거 앓앙 오랑 벼을 샅겨든. 경ㅎ젠 ㅎ난 팔도강산 구경 안 ㅎ디가 웃다.<sup>14)</sup>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양송백은 러시아 접경인 豆滿江 유역으로 출가물질을 나갔지만 현지인들의 심한 薄待와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淸津을 경유하여 馬養島, 新浦 등지에서 물질하고 번 돈으로 귀향하여 밭을 산다. 두만강 유역의 현지인들의 박대는 본토를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마양도와 신포의 현지인들의 厚待는 본토를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로 출가 물질을 나온 해녀들에게 있어서 본토라는 공간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3]

돈아 돈아

말 모른 돈아

14) 위의 책, 173~174면.

돈의 전체곳	아니민
노곡 두만강	어디라니
부랑 청진	어디라니
부랑 청진	오란 보난
「이 나그네	놀래 들어옵지기
제주 안간	놀래 들어옵지기」 <sup>15)</sup>

[4]

우리나	고향은
제주야	성산폰디
잠깐	몸 지체
오사까	동성국
십 이 번지에	사는고나 <sup>16)</sup>

[5]

산도 설고	물도 선 되
어디란	일로 와서니
돈일러라	돈일러라
말 모른	돈일러라
돈의 전체곳	아니민
내가 요디	무사 오리 <sup>17)</sup>

[3]은 러시아 두만강 하구와 함경도 富寧, 淸津으로 출가물질 나온 연유와 현지인들의 응대를 노래한 사설이다. 돈 때문에 러시아 두만강, 富寧, 淸津으로 와서 보니까(“돈의 전체곳 / 아니민 // 노곡 두만강 / 어디라니 // 부랑 청진 / 어디라니 // 부랑 청진 / 오란 보난”) 현지인 부녀자들은 제주도 해녀들에게 어서 들어오라고(“「이 나그네 / 놀래 들어옵

15)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246면.

16) 위의 책, 246~247면.

17) 위의 책, 243~244면.

지기 // 제주 안간 / 놀래 들어옴지기”라고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한다는 사설이다. 이는 위에서 양송백이 함경도 馬養島, 新浦 등지의 현지인 들부터 후대를 받았다고 구술한 자료와도 같다.

[4]는 고향은 제주도 城山浦인데 돈을 벌기 위해 日本 오사키에 잠시 머물러 살고 있다고 노래한 사설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출가 물질을 나온 해녀들도 일본이라는 공간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는 본토나 해외 공간은 단지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노래한 사설이다. 물도 낮설고 산도 낮선 타향으로 출가 물질을 나온 까닭은 모두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본토라는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긍정적인 인식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가 물질을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라는 공간을 窮乏한 생활에 찌든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부정적 현실로부터 도피의 공간이면서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을 동경하게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본토에 대한 공간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 [6]

엄마 엄마	허는 아기
저 산천에	묻혀나 놓고 허
한라산을	등에다 지고
연락선을	질을 삼아 하
거제도를	멀 허레 오란
받는 것은	구속이고
지는 것은	눈물이로다
이여사 하	



[6]은 가창자 이기순이 자신이 처한 부정적 현실의 공간인 제주도로 부터 脫出하려는 의지에서 거제도로 출가물질을 오게 된 상황을 노래한 사설이다. 가창자는 20살에 낳은 아기를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도 死別하자 미쳐서 제주도를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27살에 旅客船을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바다에 투신하려고 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부산을 경유하여 거제도로 이주하여 3년을 살게 된다. 이러한 생애력을 가창자가 구술한 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나 스무 설에 난 거 차로 굴러 죽이니까 머. 반 미쳐가꼬 신랑도 죽어 불고, 아홉 설 맥여서 차로 그거 굴러 죽여 불고 허니까, 미쳐서. 그런데 스물일곱 설에 저 부산 나온 거라. … 중략 … 미쳐서 제주도는 다돌아댕겨서 내가. 어디 저 남원으로 어딜로 미쳐서 돌아댕기다가, 예고, 이젠 제주도선 죽지도 못할 꺼고, 나 육지 나가민, 육지 간다허곡, 객선에 가서 타며는 물에 빠정 죽을 수가 있겠다해서, 선들에 저 몸뻐 하나 입고 외양목 적삼 하나 입고 떠나 온 게 죽지도 못하고, 부산 오랏다가 또 거제도 가서 한 삼 년 살다가, 거제도서 또 혼차 젊은 여지니까 못 살더라고.<sup>18)</sup>

이처럼 [6]은 가창자 이기순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정신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제주도에서 본토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가창자의 내면 의식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본토의 거제도라는 공간은 부정적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정신적 慰安과 安息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이방인으로서 겪게 되는 이질적 공간이고 구박과 설움을 받게 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자리한다. 가창자 이기순에게 거제도라는 공간은 정신적 안주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이질적 문화에 適應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

또한 본토에 출가물질을 나왔다가 정착한 해녀들에게 본토라는 공간은 타향이면서도 고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적응의 공간으로 놓이

18)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465~466면.

게 된다.

[7]

우리나 고향	언제나 가나
고향은	타향이 되고
타향은	고향이 되고
저 산천에	언제나 나면
고향 찾아	가고 올까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sup>19)</sup>	

[7]은 고향인 제주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필자가 2001년 12월 20일 慶尙南道 統營市 統營濟州裸潛婦女會館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가창자 현영자는 1945년 제주도 성산읍 은평리에서 출생하였고,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 美修洞에 거주하고 있다. 가창자 현영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 경상남도 통영시는 타향이고 제주도는 고향이다. 고향인 제주도는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기에 고향은 타향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고향은 / 타향이 되고”로 노래한다. 그리고 타향인 통영시는 현재 정착하여 살고 있는 공간이기에 고향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타향은 / 고향이 되고’라고 타향살이하는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다. 그리면서도 통영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한다. “저 산천에 / 언제나 나면 // 고향 찾아 / 가고 올까”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관념적인 고향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고, 통영시는 현실적인 고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고향인 제주도는 방문할 수는 있어도 정착할 수는 없는 공간이 되었고, 타향인 통영시는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창자인 현영자가 “언제나 나면 고향 찾아 가고 올까”라고

19) 이성훈,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 조규익·이성훈·강명혜·문숙희, 『제주도 해녀노짓는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민속원, 2005, 166면.

자탄하는 이유다. 따라서 가창자는 제주도로 완전한 귀향을 원하는 게 아니다.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인 제주도라는 공간을 동경하고 있을 뿐이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해녀노젓는소리> 가창자인 해녀들의 生涯歷을 바탕으로 그들이 체험한 삶의 軌跡이 민요 사설로 어떻게 形象化되고 있는지를 시간과 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토에 이주 정착한 제주도 출신 해녀들은 과거에 거주하였던 故鄕에도, 현재 거주하는 他鄕에도 定着하지 못하는 浮萍草 같은 신세로 전락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하여 정체성의 混亂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녀노젓는소리> 사설에 나타난 시간 의식은 본토에 이주 정착하기 전의 제주의 風物이나 記憶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본토 이주 정착민으로서의 삶의 지표와 방향을 찾아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努力과 意志로 볼 수 있다. 본토 移住民으로서 고향인 제주도로 귀향할 수 없다면 고향에 대한 인식은 타향에서의 느끼는 異邦人으로서의 설움과 본토 주민과의 葛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土臺를 마련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羅針盤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토에 出稼 물질을 나왔다가 정착한 해녀들에게 濟州島라는 공간은 제주도에서 살았던 原型性에 대한 憧憬의 대상이면서, 본토 원주민과 갈등을 통해 제주민으로서의 자아 正體性을 찾게 되는 원형적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라는 원형적 공간은 본토에서 겪는 문화적 異質感과 文化 衝突이 빛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본토라는 공간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본토 원주민들로부터 賤待와 驅迫 받는 이질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본토라는 공간은 새로운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토에 정착한 해녀들은 제주도로 완전한 귀향을 원하는 게 아니다. 다만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주도라는 공간을 동경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본토라는 공간은 타향이면서도 고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적응의 공간으로 놓여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접수일 : 07.09.14 / 심사일 : 07.09.15 / 심사완료일 : 07.09.24

### <참고 문헌>

- 김두백, 「여인국순례, 제주도해녀」, 『삼천리』 제1호, 1925.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 송실어문학회, 2003.
- 이성훈, 「서부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 조사」, 『송실어문』 제21집, 송실어문학회, 2005.
-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 조규익·이성훈·강명혜·문숙희, 『제주도 해녀노젓는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민속원, 2005.
- 제주방언연구회, 『제주어사전』, 제주도, 1995.
-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김은철, 「백석 시 연구-과거지향의 시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이성훈,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 조연숙, 「향가의 시간의식 연구」, 『고시가연구』 제13집, 한국고시가학회, 2004.

## Abstract

*Time and Space Recognition by Folk Song Singers / Lee, Seong-bun*

This study aims to discuss how the traces of life experienced by women divers, the singers of <Women Divers' Rowing Songs>, were configured into the accounts of folk songs based on life stories of women divers by focusing on their recognition of time and space.

Time recognition displayed in the accounts of <Women Divers' Rowing Songs> indicates women divers' effort and will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through finding direction and guiding post in life as immigrants to settle in the mainland by reminiscing past within the time of present to recollect sceneries or memories of Jeju before their settlement in the mainland. As immigrants to settle in the mainland, their recognition of the homeland, if they cannot return home to Jeju-do, serves as a compass to overcome sorrow experienced as foreigners and conflict against residents of the mainland, to secure foundation for new life and to design the future ahead.

It was found that, to women divers who settled in the mainland, the space of Jeju-do was their target of yearning in terms of the archetype of living in Jeju-do and was an archetypical space in which they found identities as the people of Jeju through while elbowing through conflict with natives of the mainland. Also, the archetypical space of Jeju-do served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women divers overcame conflict caused by cultural alienation and collision experienced in the mainland. On the other hand, the space of mainland was being recognized by women divers both as a space of opportunity to achieve high income and as a foreign space in which they received disdainful treatment and abuse from the mainland natives. At the same time, the space of mainland was also recognized as a space in which they adapted themselves to the new and foreign culture.

Key words: folk song, women divers' rowing songs, singers, time recognition, space recognition, Jeju-do, women divers, life stories of women divers.